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4) 그렇다고 삶을 부정하고, 고행을 해야 할까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 욕구라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당황해 하며 묻습니다. "나는 내가 욕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환상이라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물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에 대한 '의혹'이 깊이 파려 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불교를 말하기 전에, 통고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붓다의 고행상

그림, 지금 불교는 인간의 자연적 생물학적 욕구를 거부하는 것일까? 누구도 여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어야지, 이것을 거스르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상식을 믿지 않고(?) 직접 몸으로 테스트 해 보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거부하고 부정해야 구원이냐 해탈을 기약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극단적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붓다 또한 당대의 유행을 따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다라미술의 걸작으로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그 피콜이 앙상한 고행상을 말합니다.

붓다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육신을 확대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 즉 '조월로, 갈래의 소멸로, 윤회의 멈춤으로, 업의 감소로, 높은 지식으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극단적 고행을 하던 시절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풀커 초츠가 <마하시나다 스타>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기 편하게 정돈한 것입니다.

"붓다는 마가다를 거쳐 여기 저기 방랑하다가 우루벨라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산림이 울창하고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있었다. (...)에게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극단적 고행에 몰두했다. 그는 숨을 참는 훈련을 했다. 귀가 울리고 머리를 만지기로 때리는 듯한 고통이 왔지만 참았다. (...) 별거승이로 다녔고, 찌지 않아 여러 해 동안 때가 썩어내어 쌓였다. 식사는 콩 몇 개를

먹고 버렸다. 소풍도 먹고 자기 풍도 먹었다. (...)나는 목동들이 떠나면 외양간으로 가서 어린 젓먹이 송아지의 배설물을 먹었다. 내 풍 가운데 소화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먹었다. (...)잡은 시체가 가득한 들판에서 뼈다귀들을 주워 자리를 만들어 잤다. 지나가던 목동들이 짐을 뺐고, 오줌을 누고, 오물을 던지고, 풀줄기로 귀를 찌르기도 했다." (풀커 초츠, <붓다>).

번에는 지금처럼 구원을 위한 육신의 극단적인 확대를 버린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예전 아버지와 함께 농경의식에 갔다가 잠부 그늘 아래서 명상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합니다. 그때 그 선정은 감각의 불순한 쾌락도 아니고, '오직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선하의 어떤 처녀가 주는 유유족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멈춘 경지'에 도달했고, 더 깊

말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인정한다면, 그럼 불교가 나아가 깨부수려는 그 '넘쳐나는 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가 미묘합니다. 넘쳐나는 것이란, 생명의 자연적 발현이 아닌 것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욕구와 충동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게 대해 무슨

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깨달음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삼스런 각성, 그 얇이 곧 해방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붓다는 아무 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운 <금강경>은 바로 붓다와 그 제자들이 구걸로 삶을 영위했다는 것, 그러면서 최고의 위엄을 자랑하며,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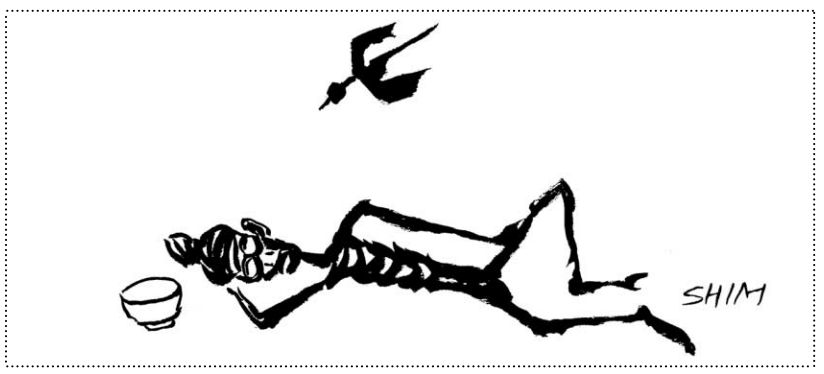
서양에서도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그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인간이 생물학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다지 힘들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도 그러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어도 앉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天父)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열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열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외도(外道)의 말이긴 하나, 저는 이 수훈이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주의를 집중하자, '투명하고 밝은 경지'가 드러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분명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붓다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을 '획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발견'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내 이제 그 실상을 투명하게 알겠다!"는 발견이 곧 깨달음

주장사파라...

37 원감 국사의 '고향길'



조태호



네티즌 교리문답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무엇인가?

크스님들의 법문에서 가끔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말이 보이는데, 그말의 유래와 뜻이 궁금합니다. 알기 쉽게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초')

답1: 무생법인이란 생성도, 소멸도 없는 실상 중에 안주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무생법인이란 생성과 소멸이 없는 모든 법의 실상 중에서 그 바른 도리를 믿고 받아들이어 통달하고, 결림이 없으며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생법인')

답2: 무생법인이란 일체의 것이 불생불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없는' 법을 인정한다는 말로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3종류의 지혜, 곧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삼법인(三法忍)의 하나입니다. 법인(法忍)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 신인(信忍)은 신심에 의해 얻는 지혜, 순인(順忍)은 진리에 순종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중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

답3: 지구와 우주에 펼쳐진 지금 이대회가 무생법인입니다. 중생과 부처를 나누지 않고, 인간과 축생을 나누지 않고, 유행과 무정을 나누지 않는 이대로 텅 빈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무생법인인 것입니다. (썬한것이 나뉘고 나뉘어 썬한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무생법인이라고 나누는 것이지, 진실로는 나고 멸함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회가 무생법인인 것입니다. ('도덕산')

답: 반아심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법의 공(空)한 모양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諸法空相不生不滅)." 보통 우리가 자기라고 여기는 육체와 정신작용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서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實體)가 없고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공(空)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空)한 존재는 태어났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생겼다고 하기 어렵고, 죽었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없어졌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참자기는 생긴 적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에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자리를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고도 부릅니다. ('joongie')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10 11 12 13 14 15 6

상식퍼즐

- 1. 강원도 평창·홍천·군과 강릉시에 걸쳐 있는 산. 월정사가 있는 산 2. 간사한 피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3. 약속한 시각에 늦음 4. 모든 공로나 공적, '장군은 ○○를 부하들에게 돌렸다' 5.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 6. 녹화방송의 상대적 의미.

정답은 19면에 1. 두 무릎, 두 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방법 7. 기악독주곡 형태의 하나로 19세기 말 김창조(1844~1913)의 가야금산조를 그 효시로 함 8. 시간을 출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미하엘 엔데의 동화, 주인공 소녀의 이름 9.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매가 옮겨 가는 현상 10. 고려 시대에 사원에 속한 논밭이나 토지 11. 서울 조계사의 전신 12.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송 13. 도자기 만드는 장인 14.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15. 상극의 상대적 의미로 쓰이는 말.

원감총지(1226-1292): 조계산 수선사의 제6세 국사. 원오국사 충경(5세) 스님에게 득도했다. 원나라에 초청되어 세조의 극진한 공양을 받기도 했다. <조계 원감국사록> 등이 전한다.